"올 여름은 '북캉스' 떠나요"

〈Book + 바캉스〉

국립중앙도서관 '휴가철 읽기 좋은 책 80선'

불황엔 바다·산 대신 책과 함께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캉스가 아닌 '북캉스'가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북캉스'란 북(book)과 바캉스의 합성어로 휴가철에 바다나 산으로 피서를 떠나는 대신 책과 함께 조용한 휴가를 보내는 것. 특히 불황이 지속되면서 올 여름 휴가철에는 예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도서관과 서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국립중앙도서관(관장 모철민)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80선'을 선정·발표했다. 주제 분야별로 어·문학, 문헌정보학 20책, 인문과학 20책, 사회과학 20책, 자연과학 20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겁고 딱딱한 주제보다는 에세이나 자기계발서 등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이름을 올렸다.

중앙도서관이 추천하는 '휴가철 읽기 좋은 책'을 중심으로 '북캉스'에 함께할 책들을 소개한다.

먼저 마음을 비우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소설 부문에서는 지난해 부터 인기를 끈 신경숙의 베스트셀러 소설 '엄마를 부탁해'(창작과비평사 펴냄)가 단연 눈에 띈다.

'엄마를 부탁해'는 어머니를 잃어버린 가족들이 9개월 넘게 어머니를 찾아 헤매면서 각자 뒤늦게 아파하고 후회하는 이야기를 담은 작가의 자전적 소설로 책을 읽으며 조용한 휴가를 보내며 가족의 의미를 새겨보게 한다.

황석영의 소설 '개밥바라기별'(문학동네 펴냄)도 눈길을 끈다. 저자의 사춘기 때부터 21살 무렵까지 다양한 경험들이 녹아있는 이 소설은 가슴에 뜨거운 열기를 품었지만 장래에 대해 막연함이 존재하던 시절,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절에 대한 회상과 공감을 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공지영의 에세이집 '아주 가벼운 깃털하나'(한겨레출판 펴냄)와 박완서·이해인 수녀 등이 엮은 '괜찮아, 살아있으니까'(마음의숲 펴냄) 등도 추천됐다.

인문과학(철학) 분야에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긍정'이 돋보인다. 삼성전자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안광호씨가 쓴 '…긍정'은 주인공 허대리가 매사 부정적인 사고와 방식으로 지방 좌천이라는 위기를 겪고 지방근무지에서 만난 긍정의 멘토를 통해 변화해가는 과정을 소설 형식으로 엮은 철학서다.

사회과학분야에선 '소통형 인간'(아리샘 펴냄)이 추천됐다. 보이스 컨설턴트라는 특이한 직업을 가진 김창옥씨가 쓴 이 책은 자신이 어린시절부터 겪어온 삶과 강연경험을 풀어놓으며 스스로 변해야 많은 사람과 통할 수 있는 소통형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아웃라이어'(김영사 펴냄) '갈치조림정치학'(생각의나무 펴냄) '디케의 눈'(궁리펴냄)도 맘잡고 읽어볼만한 책들이다.

자연과학에서는 독일 과학전문기자 요르크 블레히의 '석기시대 인간처럼 건강하게'가 주목된다. 책은 호흡을 위해 공기가 필요하듯이 인간의 근육에는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저자는 최근 의학의 패러다임이 '누워서 쉬는 휴식'에서 '운동'으로 바뀌는 전환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시대의 각종 질병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운동'을 꼽았다.

이와함께 '야뉴스의 과학'(사계절 펴냄) '생활속 수학의 기적'(황소자리 펴냄) '나비 찾아 떠난 여행'(현암사 펴냄) '집을 생각한다'(다빈치 펴냄) 등도 추천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선정목록과 서평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 참조.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최근 경기불황으로 여행 대신 집에서 책을 읽으며 휴가를 보내는 '북캉스'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27일 광주시내 한 서점가에서 시민들이 책을 고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신세계 아트페어' 미술계 뜨겁다

28일~8월12일 광주신세계갤러리

시각예술 대중화 'Green Cake' 섹션

국내 대표 작가들 작품 200점 전시

광주신세계갤러리는 28일~8월12일 국내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Green Cake-2009 신세계아트페어'를 연다.

이번 아트페어에는 평면, 입체, 사진, 영상,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중진, 신진작가 170여 명이 참여한다.

또 서울 신세계갤러리 본점과 부산 신세계갤러리 센텀시티점에서 동시에 행사가 열린다. 이들 갤러리에 총 800여점의 출품됐는데, 이중 200점이 광주에서 전시된다.

광주작가로는 고근호, 김상연, 김용안, 김익모, 김해성, 박병우, 박수만, 박태후, 손봉채, 송필용, 안태영, 오견규, 우제길, 이이남, 이정록, 정승주, 진시영, 최영훈씨 등 20명이 참여한다.

또 구자승, 김동유, 김병종, 김종학, 김창열, 박서보, 안윤모, 윤병락, 이대원, 이두식, 이사라, 이수동, 이우환, 전광영, 정규리, 하상림, 한젬마 등 국내 유명 작가 140여명도 작품을 내놨다.

이번 아트페어는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됐다. 중진작가 그룹은 'Pan cake' 섹션에 출품하고, 일부 작품의 가격을 시중가보다 20~30% 저렴하게 판매한다.

또 신진작가들은 'Hot cake' 섹션에 참여하고, 초보 컬렉터들을 위해 100만원 미만 작품을 판매하는 'Cup cake' 섹션도 곁들여진다.

광주신세계갤러리 관계자는 "아트페어 주제인 'Green Cake'는 새로움, 성장 가능성을 상징하는 색상인 녹색(Green)과 행복, 축하, 나눔을 상징하는 케이크(Cake)의 합성어로 시각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새로운 미술 유통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최영훈 작 '봄날의 꿈'

이정록 작 '사적성소'

도시를 휩쓴 살인 공포…연극 '살인놀이' 공연

31일부터 궁동예술극장

극단 예린이 부조리한 인간의 삶을 다뤄온 프랑스 대표적 극작가 이오네스크의 작품 '살인놀이'를 무대에 올린다. 31일~8월 2일 오후 4시·7시 광주예술의 거리 궁동예술극장.

'살인놀이'는 원인 모를 죽음의 공포에 대처하는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그린 블랙 코미디다.

평화롭던 도시에서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휩쓸고 지나가자 정부는 모든 사람의 외출을 금지 시키고 서로가 상대방을 감시할 것을 명령한다.

작품 속에는 자신들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지식인, 혼란을 이용해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는 정치인, 혼자 살아남겠다고 바둥대는 부자, 죽음 앞에서는 사랑도 버려야 하는 연인들 등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극단 대표 윤여송씨가 연출을 맡아 아카펠라 형식의 노래극과 60년대 신파극, 서사극적인 요소를 가미했으며 역동적인 음악 등으로 극의 분위기를 살렸다. 윤여송·임채현·김동원·조혜훈씨 등이 출연한다. 전석 1만원. 문의 062-234-224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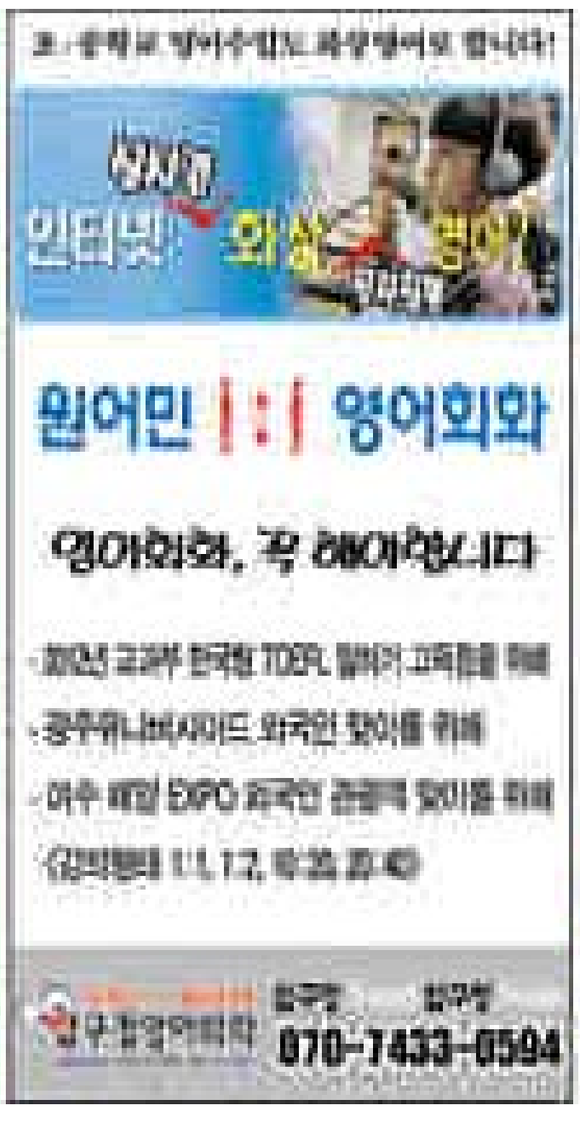
'우리 동네 문화예술…' 공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주민들과 밀착된 지역 특화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우리 동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신청 대상은 동·마을 단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이며 주민센터, 경로당 등 주민 생활권 내에 있는 문화 시설이나 평생학습 시설과 연계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제한은 없지만 기량 향상 중심의 강습 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는다. 프로그램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해야 하며 선정된 단체와 개인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접수 마감은 8월 10일이며 18일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문의 062-670-576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